

서울 방판업체발 첫 확진 후 다중시설 매개 연쇄감염

옛세만에 31명...순천 무더기 확진자 나온 이유

노 마스크 헬스장 감염 고리
확진자 무증상 포착 어려워
에어컨 바람 타고 무차별 감염
일부 시설 방역 비협조 비난

50번 확진자 발생과 같은 날 그의 아들(전남 51번)마저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전남 51번을 매개로 순천 홈플러스 푸드코트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과 23일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한 시간 점심 먹는 사이 천장 에어컨 바람 등을 타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이용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졌다.

컸질 것으로 여겨졌던 푸드코트발 바이러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25일에는 순천 청암 헬스장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방판업체에 종사하는 전남 50번 확진자와 식사했던 지인(전남 75번)이 최근까지 다녔던 헬스장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이다. 전남 75번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헬스장에 나가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 가져와라, 극장 폐쇄 못 해”... 일부 다중시설 비협조도= 방역당국은 순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원인에 대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진 데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순천 지역 집단 감염지로 지목된 홈플러스 푸드코트와 헬스장은 사실상 마스크를 쓰고 이용이 불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이다. 음식을 먹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기대하기 힘든 만큼 사실상 출입 자체가 상책인데도 순천에서 이들 시설 이용객은 적지 않았다.

일부 대형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방역당국 협조 요청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장애물로 꼽힌다.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파악된 순천 신대 CGV 극장의 경우 방역 당국의 “극장 일시 폐쇄”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영장을 가



순천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14명이 쏟아져 나온 2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ejkim@kwangju.co.kr

저오라”며 버티다, 방역당국이 경찰을 대동하고 전남도의 행정명령서를 제시하자 그때야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인근 사군역화조사관 등 20명의 역학조사관이 순천에 투입됐지만, 확진자 집단 발생과 함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비협조로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파악, 시설 폐쇄, 소독 등 방역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조기에 잡으려고 시내 유치원과 초·중, 특수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학원·체육시설·유흥주점·사우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대통령 “방역과 경제 모두 범정부적 비상대응 필요”

하반기 경제정책 보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면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 지난 3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상 대주 한 번씩 총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회의를 통해 3차례의 추경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277조원에 이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무겁게 인식하는 동시에 긴급 경제 처방을 속도감 있게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게 점검해 달라”며 “당장의 수혜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 점검 ▲취약계층·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 ▲코로나 상황 안정화 이후 소비 진작 및 내수 활력 정책 신속 재개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재정 신속 집행 등을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연락 두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전남도도는 15명 수사 의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지역민 소재 파악을 경찰에 요청했다. 시는 광화문 집회 광주 참여자를 인솔한 목사 측으로부터 경찰의 협조를 얻어 111명, GPS 추적을 통해 175명 명단을 확보했다. 시는 286명 가운데 자진 신고자와 중복된 사람을 제외한 2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두 134명이 검사를 받아 9명이 양성, 1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명은 가족 감염으로 이어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광주에서 모두 10명이 나왔다. 전체 명단 중 88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목사측으로부터 받은 명단은 111명이지만 ‘홍길동 의 0명’ 식으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실제 연락처를 확보한 사람은 36명뿐이다. 그나마도 전화를 받지 않아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당국은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하고 추가로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남도도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도 코로나 19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주민 15명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수

사 의뢰했다. 정부 및 전남도 조사 결과 해당 집회에는 전남 도민 19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72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으며, 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남은 18명 가운데 3명은 이날 중 검사가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광복절 집회 참석을 위해 순천·여수·광양·보성 등 동부권에서 버스 2대, 신안 승합차 1대, 목포·무안·함평 등 목포권 버스 1대, 나주·담양·장성 등 중부권 버스 1대가 동원된 것으로 앞서 전남도는 파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정원, 5·18 진상조사 위해 3천페이지 기록물 제공...“의혹 해소 적극 협조”

국가정보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총 3389페이지 분량의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25일 “진상조사위 조사 개시를 계기로 자료를 다시 전수 검색했다”면서 “과거 국방부 특조위에 제공했던 자료와 함께 총 45건, 3천389쪽을 지난 11일

5·18 진상조사위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5번째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5·18 진상조사위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행한 역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든지,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한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